

Ⅲ

채소류 시장동향



- 1 채소류 시장개황
- 2 파프리카 시장동향
- 3 토마토 시장동향
- 4 버섯 시장동향

1. 채소류 시장개황

가. 생산동향

-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채소류는 양배추로 2006년 기준 4,073천톤이 생산되었으며, 토마토 2,415천톤, 당근(순무) 1,918천톤, 양파 1,789천톤, 오이 1,423천톤 순으로 나타남. 특히, 양파, 감자, 토마토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주로 먹는 3대 채소로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최근 6년간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을 보면 수박이 8.28%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으며, 오이 7.23%, 양파 5.75%, 토마토 4.36%, 호박 4.24% 순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브로콜리의 생산증가율은 -0.69%로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임

〈채소류 생산량〉

(단위 : 톤)

품 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율
양배추	3,855,530	3,651,850	4,442,210	4,067,680	4,051,090	4,073,240	1.10%
토마토	1,950,600	1,979,530	2,021,070	2,017,860	2,295,900	2,414,860	4.36%
당근, 순무	1,575,070	1,474,100	1,735,760	1,762,040	1,793,310	1,918,370	4.02%
기타 채소류	1,600,000	1,304,000	1,461,000	1,631,030	1,729,210	1,818,360	2.59%
양파(건조)	1,352,470	1,402,220	1,564,730	1,673,420	1,758,740	1,788,750	5.75%
오이	1,004,000	1,173,690	1,312,030	1,321,870	1,414,010	1,423,210	7.23%
호박	962,500	883,650	1,032,720	1,110,720	1,081,360	1,184,670	4.24%
수박	662,000	857,230	932,410	920,350	964,580	985,510	8.28%
마늘	228,380	230,200	219,570	236,170	257,280	255,860	2.30%
콩	46,170	55,510	32,450	45,800	39,730	46,350	0.08%
브로콜리	15,190	10,380	16,580	15,460	13,800	14,670	-0.69%
버섯류	6,000	7,000	5,700	6,000	5,000	6,000	0.00%

자료 : FAO Statistics

나. 수입동향

■ 전체 수입동향

-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채소류는 토마토로 2007년 기준 528백만불, 549천톤이 수입되었으며 3년 평균 수입 증가율 역시 60.6%로 비교적 빠른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 뒤로는 양파 및 파 212백만불, 고추류 99백만불, 기타채소 43백만불, 버섯류 31백만 불의 순서를 보임
- 최근 3년간 수입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기타 버섯류가 78.3%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오이 67.4%, 토마토 60.6%, 고추류 58.4% 순의 수입증가율을 보임

〈채소류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톤)

품목	2005		2006		2007		수입액 증감율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채소류 전체	722,480	1,967,710	930,876	2,143,174	1,380,677	2,304,099	39.8%
토마토	216,254	352,284	299,025	413,573	528,348	549,111	60.6%
양파, 파, 마늘	132,471	542,886	153,248	578,041	212,844	657,346	28.1%
고추류 ¹⁰⁾	37,735	62,335	68,043	71,066	99,459	76,969	58.4%
기타채소	21,378	22,681	29,040	32,728	43,457	45,885	43.8%
버섯(신선, 냉장)	21,470	25,323	24,668	27,459	30,890	32,295	20.4%
가지	6,931	11,898	9,897	14,439	12,427	16,600	32.7%
기타 버섯류 ¹¹⁾	216	126	122	108	482	487	78.3%
감자	87,358	376,342	95,895	370,994	107,348	251,988	10.9%
오이	32,745	57,831	52,583	79,832	90,247	122,534	67.4%
당근, 순무	46,266	178,914	56,897	198,932	74,627	175,095	27.5%
양배추, 브로콜리	43,921	173,240	48,077	166,443	71,056	179,073	29.5%
기타	75,735	163,850	93,379	189,558	109,495	196,715	20.0%

자료 : Global Trade Atlas

10) 파프리카 포함

11) 양송이를 제외한 버섯류들, 새송이와 팽이버섯은 여기에 포함됨

■ 품목별 수입 및 경쟁동향

- 러시아의 채소류 수입은 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며 극동지역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 그러나 최근 고급 채소류에 대한 관심 및 소비 증대로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품목별 수입규모〉

(단위 :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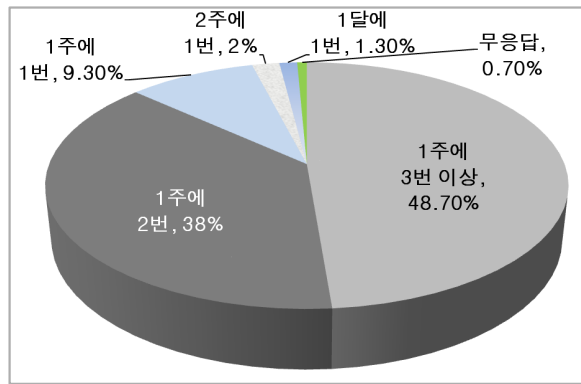
	수입액		수입국
	전체	한국산	
토마토	528,348	4	터키(210,427), 중국(54,939), 우즈베키스탄(48,995), 카자흐스탄(40,752), 모로코(32,390), 스페인(29,397)
양송이버섯	30,890	0.02	폴란드(29,513), 리투아니아(848), 중국(222), 헝가리(131), 네덜란드(53), 슬로바키아(43), 프랑스(16)
기타버섯	482	0.17	폴란드(39.), 중국(81), 이탈리아(3.5), 네덜란드(2.8), 태국(2.4), 프랑스(1.6)
고추류 ¹²⁾	99,459	1.2	네덜란드(27,060), 이스라엘(20,614), 스페인(15,462), 중국(12,634), 카자흐스탄(6,681), 우즈베키스탄(5,443), 벨기에(3,527)
양파	189,159	0	중국(37,727), 타지키스탄(32,692), 네덜란드(28,296), 카자흐스탄(26,659), 우즈베키스탄(16,468)
감자	107,348	0	이집트(32,858), 중국(19,850), 아제르바이잔(16,816), 네덜란드(8,440), 이스라엘(8,289)

자료 : Global Trade Atlas

12) 파프리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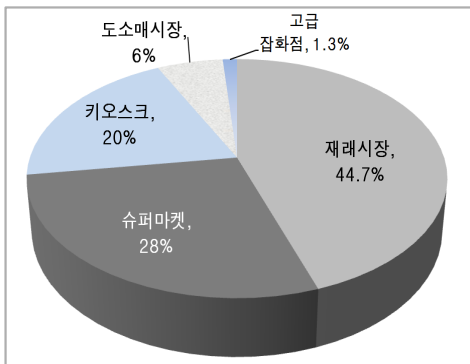
다. 소비자 성향¹³⁾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채소류 구매횟수를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의 48.7%가 1주에 3번 이상 채소류를 구입한다고 응답했으며, 1주에 2번(38%), 1주에 1번(9.3%) 순으로 조사됨



【채소류 구입횟수】

- 채소류 구매 장소로는 재래시장이 응답자의 44.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로는 슈퍼마켓 28%, 키오스크 20% 등의 순서를 보임.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슈퍼마켓을 통한 채소류 구매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 연령대에서는 재래시장 이용비율이 확실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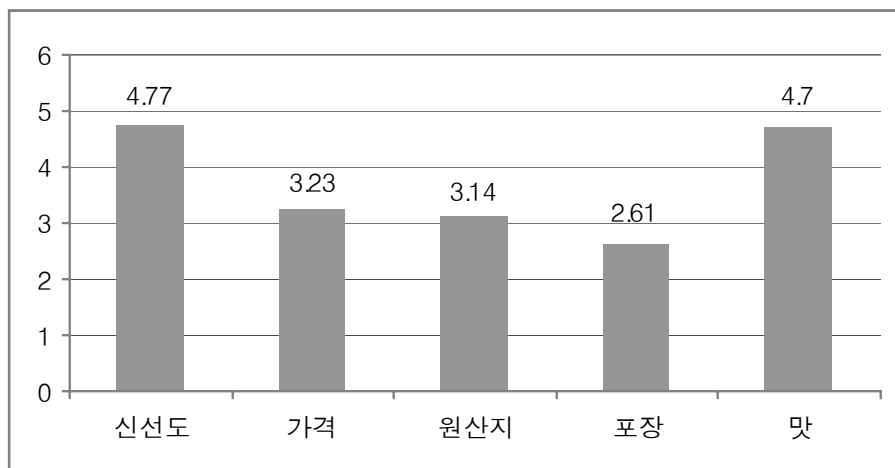


【채소류 구입 장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재래시장	20.0%	60.0%	57.1%	48.6%
슈퍼마켓	48.9%	8.6%	25.7%	22.9%
키오스크	17.8%	31.4%	11.4%	20.0%
도소매시장	11.1%	-	2.9%	8.6%
고급 잡화점	2.2%	-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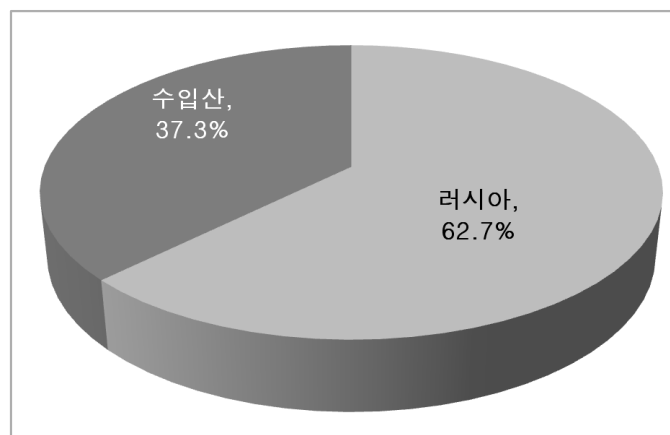
13) 블라디보스토크 소비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 채소류 구매시 고려사항으로는 신선도가 5점 척도 기준 4.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맛 4.7, 가격 3.23, 원산지 3.14, 포장 2.61 순으로 나타나, 채소류의 신선도나 맛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포장 및 원산지에 대해 낮은 관심도를 보이는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의 특성을 엿볼수 있음



【채소류 구매시 고려사항】

- 현지산과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응답자 중 62.7%가 러시아 현지산을 선호한다고 밝혀 아직까지는 수입산보다는 현지산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입산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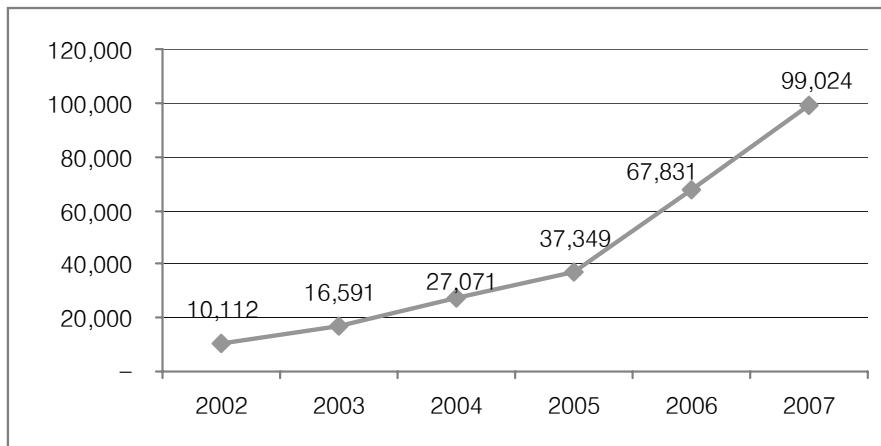
라. 한국산 채소류의 러시아 시장 진출여건

기 회	위 험
○ 지리적 기후적 악조건으로 생산 증대의 한계성으로 채소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생산증가율 : 5%, 수입증가율 : 40%) ○ 자원개발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극동 러시아 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 ○ 극동러시아 지역의 높은 소매시장 성장율 (18.9%)	○ 러시아의 주력시장인 모스크바 및 서부 러시아 지역과의 먼 지리적 거리 ○ 중앙아시아 국가 및 중국의 시장선점 ○ 미성숙한 유통구조 ○ 주력 타깃시장인 극동러시아 지역의 인구 유출 증가 ○ 까다로운 통관제도로 인해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업자에 의존
강 점	약 점
○ 중국산 채소류에 비해 우수한 품질 및 위생조건 ○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미국, 유럽제품에 비해 가까운 운송거리	○ 중국산 채소류에 비해 비싼 가격 ○ 국내가격 동향에 의존도가 높은 수출물량

2. 파프리카 시장동향

가. 일반현황

- 높은 수입 증가율¹⁴⁾ : 러시아의 파프리카 수입액은 2007년 99,024천불로 2002년 이후 연평균 57.8%의 높은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62.8%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현지 바이어들의 의견에 따르면 파프리카의 수입증가 요인으로는 자원개발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채소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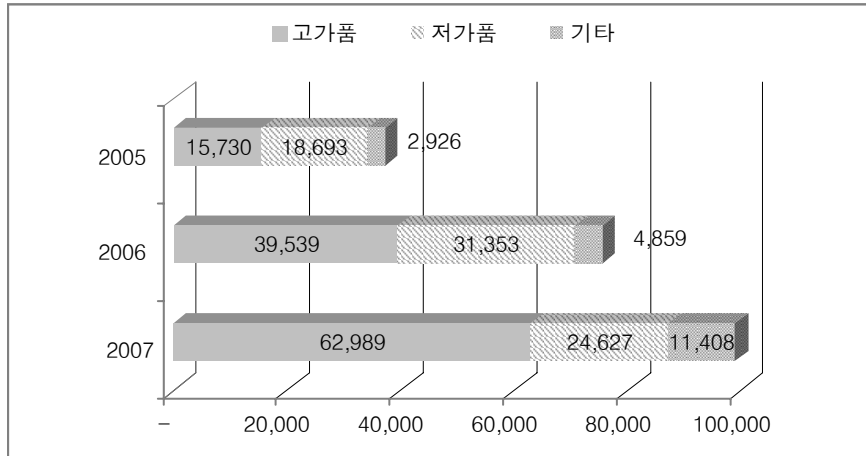


【러시아 연도별 파프리카 수입액 (단위 : 천불)】

- 시장 내 고가제품의 비중 증가¹⁵⁾ : 2005년의 경우 전체에서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등에서 수입된 고가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2.1%에 불과했으나 2007년 63.6%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이는 소비자들 사이의 소득격차 심화로 파프리카를 주 고객층인 고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에 기인함

14) 극동러시아만의 통계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 전체 러시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함

15) 고가품 :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등에서 생산되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저가품 :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생산되어 저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러시아 연도별 고가품 및 저가품 비중 (단위 : 천톤)】

- **Korea Premium** : 극동러시아로 수입되어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형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는 경쟁제품인 네덜란드 및 이스라엘 제품보다도 높은 kg 당 479루블에 판매되고 있음
- 이는 한국산 제품이라는 좋은 이미지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이스라엘 및 네덜란드 제품에 비해 높은 신선도 유지 등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국산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이스라엘	중국	한국
432루블/kg	91루블/kg	479루블/kg

- 제품 색깔별 가격 및 선호 상이 : 블라디보스토크 내 일부 매장의 경우 색깔별로 파프리카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며 색깔별 선호도를 보면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의 순서를 보임

		
76.5루블/kg	75루블/kg	65루블/kg

- 제품 포장에 대한 관심증대 : 현재까지 파프리카는 보통 벌크 형태로 수입되어 현지에서 랩으로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최근 수입업자들이 새로운 포장재 개발 및 포장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나. 수입현황

■ 국가별 수입동향

- 러시아로 수입되는 파프리카의 규모는 99,024천불, 76,524 톤으로 2005년의 37,349천불, 61,858톤에서 매년 62.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전체 러시아 수입량 중 3%인 2,971천불, 2,296톤이 극동러시아로 수입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07년 기준 러시아의 파프리카는 네덜란드(26,979천불), 이스라엘(20,612), 스페인(15,396), 중국(12,573), 카자흐스탄(6,635) 등 유럽, CIS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극동러시아에서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중국, 한국 파프리카만이 수입 유통되고 있음

(단위 : 천불,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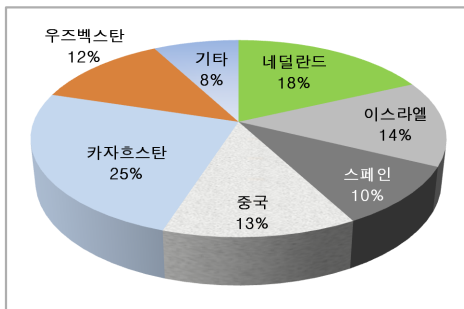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체	37,349.3	61,857.6	67,830.8	70,875.0	99,024.0	76,523.5
네덜란드	6,770.9	11,964.8	19,262.3	12,551.5	26,979.9	15,743.2
이스라엘	5,251.1	9,873.4	10,874.5	14,762.6	20,612.0	17,440.0
스페인	3,708.4	5,993.5	9,402.6	7,348.9	15,396.3	8,156.2
중국	4,816.0	6,052.2	7,614.4	8,425.0	12,573.2	11,081.5
카자흐스탄	9,252.3	16,585.1	8,141.1	14,955.8	6,635.3	11,831.2
우즈베키스탄	4,624.4	6,774.2	6,844.8	7,972.5	5,418.3	3,916.2
벨기에	157.6	303.0	1,251.5	853.6	3,519.9	2,273.5
폴란드	1,082.1	1,077.5	2,472.2	1,392.1	2,921.9	1,486.2
한국	0.0	0.0	0.0	0.0	1.2	1.0
기타	1,686.6	3,233.9	1,967.4	2,613.0	4,965.8	4,594.5

자료 : Global Trade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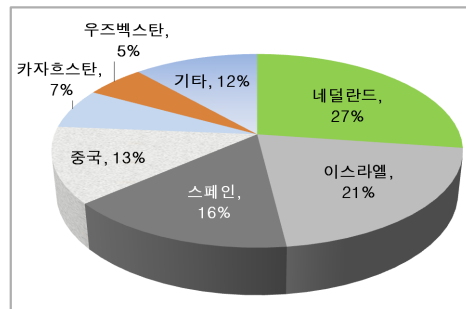
주) HS코드 : 07096010, Fresh Or Chilled Sweet Peppers

■ 국가별 시장 점유율 및 수입단가

- 2005년도와 2007년도의 파프리카 수입국별 점유율을 보면,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등 고품질 제품의 점유율은 네덜란드 18%에서 27%, 이스라엘 14%에서 21%, 스페인 10%에서 16%로 모두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저가 제품의 경우 중국만이 13%의 점유율을 유지한 반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음
- 이는 러시아 내에서 파프리카 소비 역시 고가 고품질 제품으로 개편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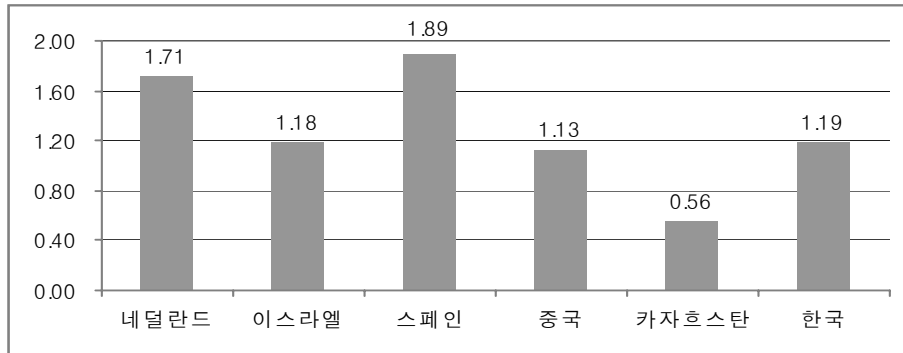


【2005년 국가별 수입비중】



【2007년 국가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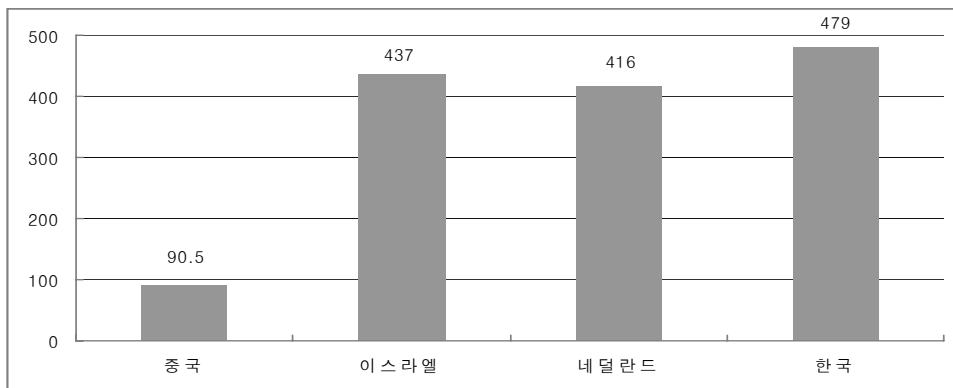
- 러시아 수입 파프리카의 수입통계 상의 단가를 비교해 보면 스페인산과, 네덜란드산이 각각 1.89달러/kg, 1.71달러/kg로 가장 높은 단가 포지셔닝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산과 이스라엘산이 1.19달러/kg, 1.18달러/kg로 중간층을 이루어 있으며 중국산과 카자흐스탄산이 1.13달러/kg, 0.56달러/kg의 저가 제품군을 이루고 있음



다. 경쟁동향

■ 경쟁 개황

- 극동러시아의 파프리카 시장은 크게 중국산 제품의 저가시장과 한국, 이스라엘, 네덜란드산 제품들로 구성된 고가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음. 중국산 파프리카의 경우 kg당 89.5루블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나 색깔이 분명하지 못하고 단맛이 약한 등 낮은 품질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성에도 크게 의심을 받고 있어 주로 소득이 낮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원산지별 파프리카 평균 소매가격(단위 : 루블/kg)】

- 고급 파프리카 시장의 경우, 한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제품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이스라엘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의 경우 높은 신선도 유지, 우수한 품질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2008년 7월 기준 한국산 파프리카는 빠루스 매장에서 479루블/kg에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매장의 경쟁품인 이스라엘 제품은 437루블/kg에 판매되고 있음

〈매장별 파프리카 가격 포지셔닝〉

(단위 : 루블/kg)

	벨라제르	스에라마트	빠루스
한 국	-	-	479
네덜란드	-	416	-
이스라엘	442	-	432
중 국	89.5	91	9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 조사 (2008. 7)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파프리카 색상은 빨강, 노랑, 녹색 순으로 일부 매장에서는 중국산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빨간색은 76.5루블, 노란색은 75, 초록색은 65루블로 차별해서 판매하기도 함

〈중국산 파프리카의 색깔별 가격동향〉

(단위 : 루블/kg)

매장명	빨강	노랑	초록
Clever House	76.5	76	65
5+ (Five Plus) ¹⁶⁾	82	73	83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 조사 (2008. 7)

- 한국산 파프리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신선도가 잘 유지된 고품질 제품의 지속적인 공급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산임을 알아보기 쉬운 브랜드 부착이 필요함¹⁷⁾

16) 우수리스크 최대 식품 유통매장

17) 블라디보스토크 대형식품매장 '빠자르' 과채류 판매담당자 의견

■ 파프리카 제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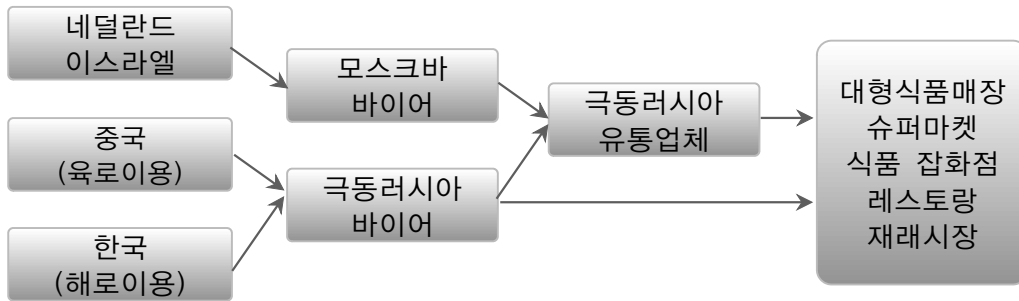
원산지	중국	이스라엘
사진(전체)		
가격	89.5루블/kg ¹⁸⁾	442루블/kg
색상	전반적으로 색상이 고르지 못함	주황 빛이 고르고 뚜렷함
사진(절단면)		
단맛	하	상
아삭함	하	상

라. 유통동향

- 극동러시아의 파프리카의 유통경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경로는 기존의 서부 러시아 즉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딜러를 통해 모스크바를 거쳐 항공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네덜란드, 이스라엘 제품이 주로 이 경로를 통해 수입되고 있음

18) 블라제르 매장 기준 (2008. 7)

- 중국 파프리카의 경우 트럭이나 철도를 이용해 육로로 이동하고 있으며, 끝으로 한국이나 일본산 제품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 항이나 니혼카 항을 통해 극동러시아로 직접 수입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은 모스크바를 거쳐 오는 제품에 비해 신선도 유지가 유리해 고품질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극동 러시아 파프리카 유통구조】

- 극동러시아에 도착한 파프리카는 크게 대형식품매장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한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제품은 주로 대형 식품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반면, 중국산 제품의 경우 대형식품 매장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¹⁹⁾에서도 저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제품은 극동러시아 최대 과채류 시장인 우스리스크시의 두즈리바 도매시장을 통해 캄차카, 마가단, 사할린 등 다른 주로도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의 경우, 빠루스 등 대형식품매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유통되기도 함. 한국산 파프리카는 고가에는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통채널이 그리 다양하지 못해 판매 확대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재래시장의 중국산 파프리카】

19) kg당 60에서 80루블 사이의 가격에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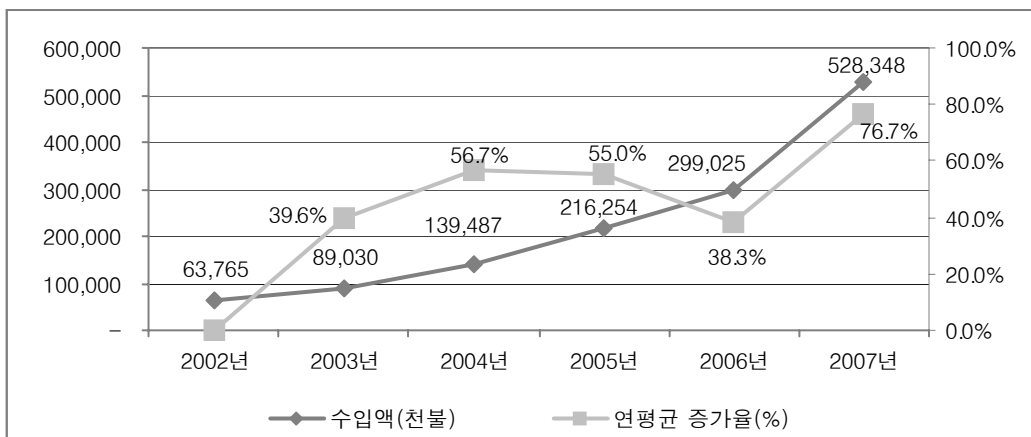
마. 한국산 진출여건 및 확대방안

- **고가 고품질** : 극동러시아 파프리카 시장은 저가품보다는 고가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시장이므로 고품질 고가 제품으로 시장접근이 바람직하며, 특히 제품의 고급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함
- **꾸준한 물량공급** : 현지 바이어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중 하나가 꾸준하지 국내 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공급 물량 및 가격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Korea Premium 활용** : 극동러시아 시장은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이를 활용해 한국산 제품임을 나타내는 상표를 부착해 제품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일부 바이어는 한국어로 상표 표기시 현지 소비자 인식이 어렵고, 러시아어 표기 시에는 위조된 상표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어로 “Made in Korea”라는 상표 제작을 희망하기도 함
- **포장개선** : 한국산 파프리카 제품은 벌크형태로 수출되어 현지에서 랩으로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타국산 고급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포장 개선이 필요함. 일부업체에서는 한국에서 개별포장 후 운송시 포장비 및 운송료가 증가하게 되므로 수출시 포장재를 동봉해 보내주기를 희망하기도 함

3. 토마토 시장동향

가. 일반개황

- 러시아 3대 채소 중 하나 : 토마토는 러시아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3대 채소(감자, 오이, 토마토) 중 하나로, 러시아 채소 수입에서 38.3%를 차지해 채소류 중 가장 큰 규모로 수입되고 있음
- 자국산 소비에서 수입산으로 대체 : 토마토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식재료인 만큼 수입산 토마토 보다는 자국산 토마토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²⁰⁾ 최근 가격경쟁력을 갖춘 터키, 중국산 토마토와, 품질 경쟁력을 갖춘 네덜란드 토마토 등 수입산에 대한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평균 수입증가율 52.6% : 2007년 기준 러시아의 토마토 수입규모는 528,348천불로 이중 5%인 26,417천불이 극동러시아로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52.6%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터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토마토는 주로 서부, 중부 러시아로 수입되며, 극동러시아 지역으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산 토마토가 주로 수입되고 있음



【연도별 토마토 수입액 및 수입증가율²¹⁾】

20) 전체 소비자의 62.7%가 수입산 토마토보다는 자국산 토마토 소비 선호

21) 기하평균으로 계산

나. 수입동향

■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톤)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체	216,254	352,284	299,025	413,573	528,348	549,111
터키	54,944	103,430	76,793	124,235	210,427	229,237
중국	22,106	40,657	30,989	48,504	54,939	55,924
우즈베키스탄	45,357	57,695	38,083	46,792	48,996	30,334
카자흐스탄	29,213	38,679	51,936	48,329	40,752	29,495
모로코	9,823	18,330	14,815	20,759	32,390	32,406
스페인	11,198	17,630	23,872	28,903	29,397	25,689
키르기스스탄	714	1,042	5,801	3,688	16,691	14,289
폴란드	7,148	9,348	8,218	9,972	16,423	20,426
네덜란드	5,279	8,566	8,631	11,414	15,639	19,706
이스라엘	378	566	1,713	1,846	3,938	2,813
태국	3.2	0.5	27.0	5.9	54.3	11.9
체코	0.0	0.0	149.7	195.7	49.1	92.7
미국	0.0	0.0	6.3	2.8	13.8	2.5
핀란드	9.8	1.6	9.7	1.4	6.9	0.9
한국	0.0	0.0	0.0	0.0	4.5	2.4
일본	0.0	0.0	0.0	0.0	0.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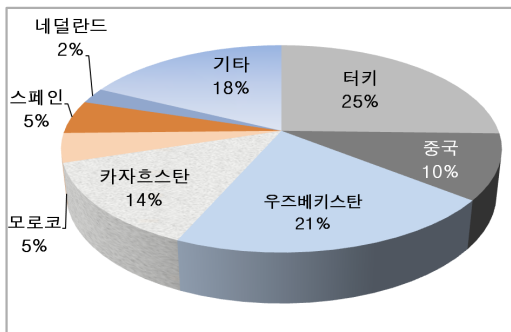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 HS코드 : 0702, Tomatoes, Fresh Or Chil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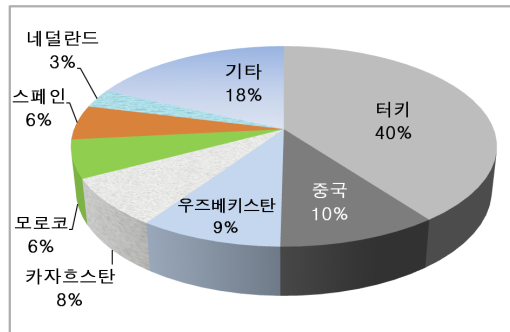
- 러시아의 토마토 수입규모는 528,348천불, 549,111톤으로 전체 채소류 수입의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인 26,417천불, 27,456톤이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국가별 수입규모를 보면 터키(210,427천불), 중국(54,939), 우즈베키스탄(48,996), 카자흐스탄(40,75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극동러시아에서는 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산 토마토와 품질이 우수한 고가의 네덜란드 토마토가 주로 수입 유통되고 있음

■ 국가별 시장 점유율 및 수입단가

- 2005년도와 2007년도의 수입 토마토 수입국별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터키의 비중이 25%에서 40%로 크게 증가된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각각 21%에서 9%로, 14%에서 8%로 비중이 감소했음. 극동러시아에서 주로 유통되는 중국, 네덜란드 토마토의 비중은 각각 10%, 3%로 수준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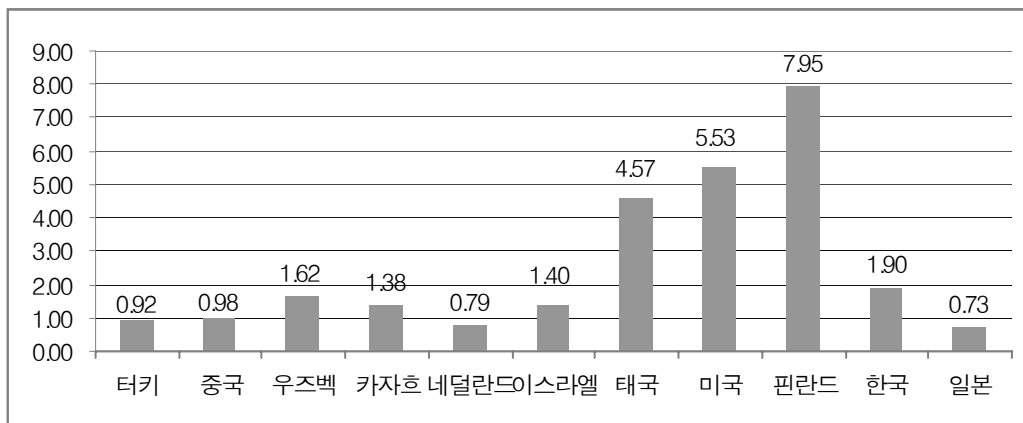


【2005년 국가별 수입비중】



【2007년 국가별 수입비중】

- 러시아로 수입되는 토마토들의 수입단가를 비교해 보면, 수입비중이 큰 터키, 중국 토마토는 0.92\$/kg, 0.98\$/kg으로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는 반면 태국, 미국, 핀란드 등에서 수입된 토마토는 4.57\$/kg, 5.53\$/kg, 7.95\$/kg의 가격에 수입되고 있음. 아직까지는 소량만이 수입된 한국산의 경우, kg당 1.90\$의 비교적 높은 가격에 수입되었음



【원산지별 토마토 수입단가】

다. 경쟁동향

■ 경쟁 개황

- 대형식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토마토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방울토마토의 경우 중국산은 kg당 72루블의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반면 네덜란드산은 500g에 248.5루블에 판매되고 있음. 일반토마토는 중국산은 55루블, 러시아산은 품질에 따라 61.5루블과 81.5루블에 판매되고 있음.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방울토마토와 함께 검은 토마토인 쿠마토를 같이 수출해 대형매장에서 500g당 243루블에 판매되고 있음

〈대형식품매장 토마토 가격동향〉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방 울	72루블/kg	-	131.5루블/250g 248.5루블/500g
송 이	55루블/kg	-	-
일 반	55루블/kg	81.5루블/kg 61.5루블/kg	-
쿠마토 ²²⁾	-	-	243루블/500g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조사 (2008. 7)

- 네덜란드의 방울토마토는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같은 크기의 붉은색 토마토만을 선과하여 꼭지가 마르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포장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방울토마토는 줄기까지 절단하여 비닐포장 후 판매해 신선도가 보다 오래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중국산 제품의 경우, 흰 플라스틱 케이스에 랩으로 덮어 판매하고 있으며, 선과 과정 없이 여러 가지 색과 다양한 크기의 토마토를 같이 넣고 포장했으며 종종 티끌이나 먼지 등의 오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음

22) 쿠마토는 본래 검은 색의 토마토로 갈라파고스제도에서 자생하던 품종으로 영국 청과 업자, 토마토 재배농가, 종자회사 신젠타가 함께 연구하여 품종 개발에 성공함. 2004년 3월에 올메카(Olmeca)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수확기간이 일반 토마토보다 3~4개월 길어 최고 1년까지 수확이 가능함. 쿠마토는 베타카로틴(β -carotene), 라이코펜(lycopene), 비타민 C를 일반 토마토보다 1.4배 정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섬유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형식품매장의 네덜란드 토마토와 중국산 토마토】

- 그리고 중국산 토마토는 유통 상의 문제로 토마토 꼭지가 마른 신선도가 떨어진 제품이 많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산 방울토마토】

- 재래시장에서는 중국산 토마토와 러시아 현지산 토마토가 주로 유통되는데 중국산은 kg당 40루블에, 러시아 산은 kg당 25루블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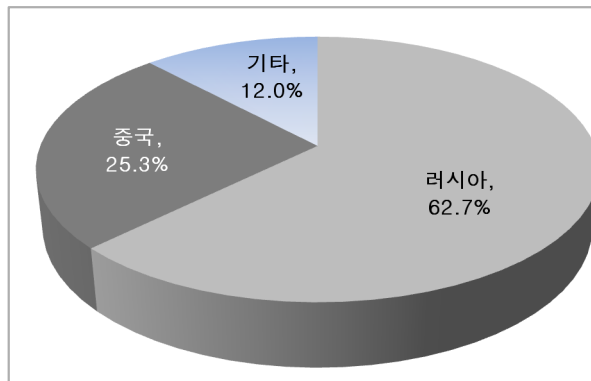
〈재래시장 토마토 가격동향〉

	중국	러시아 ²³⁾
방 울	40루블/kg	-
송 이	45-50루블/kg	-
일 반	60루블/kg	25루블/kg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 조사 (200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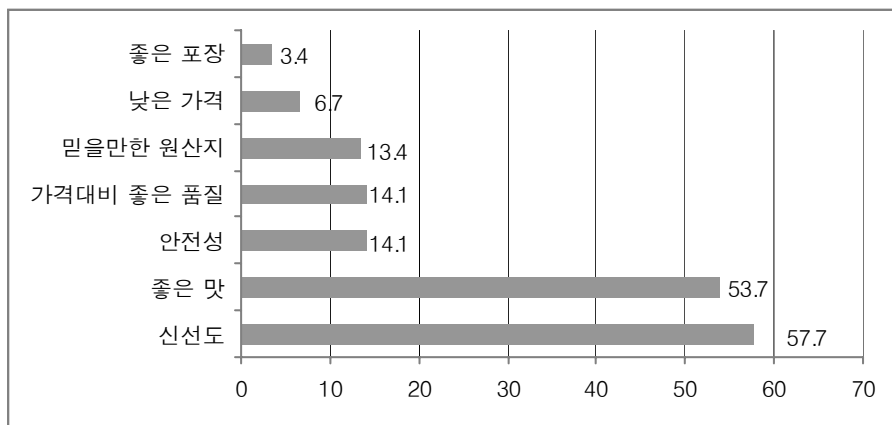
■ 소비자 선호도²⁴⁾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의 토마토에 대한 원산지별 선호도를 보면,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토마토는 러시아 현지산으로 전체 소비자 중 62.7%가 선호한다고 밝힘. 수입산 중에서는 소비자의 25.3%가 선택한 중국산에 대한 선호가 높음



【원산지별 소비자 선호도】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이 토마토 구매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신선도(57.7%), 좋은 맛(53.7%)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 가격대비 좋은품질, 믿을만한 원산지 등의 순서로 나타남



【토마토 구매시 고려사항】

23)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유통

24)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남녀 소비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라. 유통동향

- 한국산 토마토의 대표적인 경쟁상대인 네덜란드 토마토는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되거나 줄기까지 절단하여 비닐 포장되어 대형식품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반면, 중국 및 러시아 현지산 토마토는 대형식품 매장과 재래시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중국산 토마토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해, 트럭을 통해 수입되어 우수리스크의 도매시장에 집하되었다가 극동러시아 전역으로 분산되어 판매되고 있음. 중국산 토마토는 흰 플라스틱 케이스에 랩으로 덮어 판매하고 있으며, 선과 과점 없이 여러 가지 색과 다양한 크기의 토마토를 같이 넣고 포장했으며 종종 티끌이나 먼지 등의 오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음
- 네덜란드 토마토는 항공으로 운송되는데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직접 운송되기보다는 모스크바의 대형수입상을 통해 수입되어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재판매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내륙운송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어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토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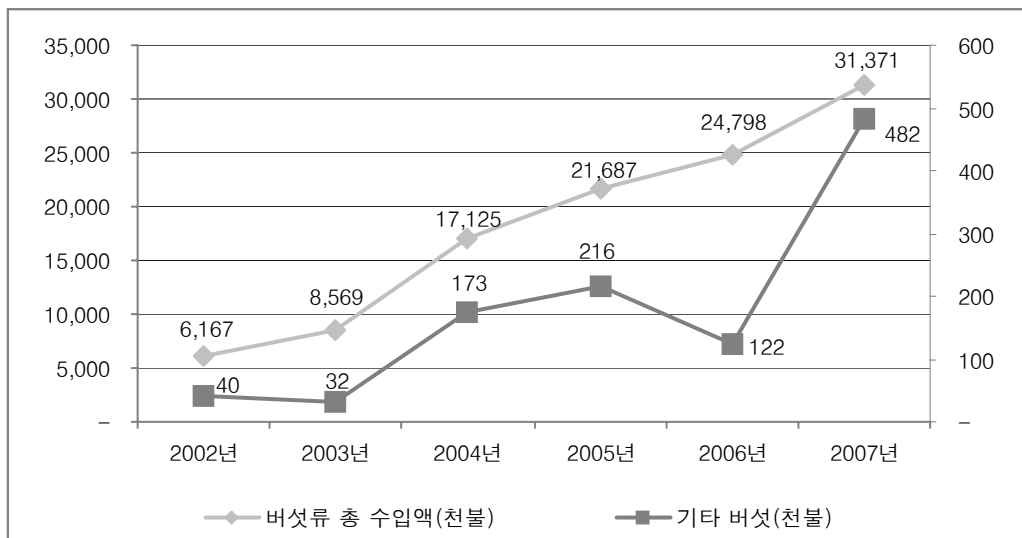
마. 한국산 진출여건 및 확대방안

- **고가 고품질 이미지 정착** : 극동러시아 토마토시장은 저가의 자국산이나 중국산 토마토 중심 소비에서 네덜란드 제품을 중심으로 고가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을 타킷으로 고가 고품질의 제품공급 노력이 필요함
- **한국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금지** : 토마토는 감귤과 더불어 한국수출업체간 경쟁으로 덤핑사례가 발견된 품목으로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출품의 품질하락으로 전반적인 한국산 토마토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체 간의 협력이 필요함
- **Korea Premium 활용** : 극동러시아 시장은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지역 중 하나로 저가품인 중국산과 차별화와 고급제품인 네덜란드 제품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임을 강조하는 상표 부착 등 원산지 이미지 강화 노력이 필요함

4. 버섯 시장동향

가. 일반개황

- 높은 수입증가율, 서부러시아 중심 소비 증가 : 2007년 기준 러시아의 버섯류 전체 수입액은 31,371천불로 2002년부터 연 3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새송이와 팽이버섯이 포함된 기타버섯류 역시 2007년 기준 482천불이 수입되었으며 연 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그러나 극동러시아 바이어들의 의견에 따르면 버섯 소비는 대부분 서유럽의 유행에 민감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서부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극동러시아의 버섯 소비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버섯류 취급을 꺼리고 있음



【버섯류 수입동향】

- 러시아 전통버섯, 양송이 중심 소비 : 극동러시아 소비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이 강한 러시아 전통버섯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수입버섯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양송이의 비중이 98%에 이르고 있어 러시아의 버섯소비는 러시아 전통버섯과 양송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산지별 상이한 구매사유 : 원산지별 구매사유를 조사한 결과, 러시아산은 신선도, 중국산은 맛, 한국산은 믿을만한 원산지를 주 구입이유로 조사됨
- 한국산 제품구매는 40대 이상의 장년층 중심 : 설문조사 결과 한국산 버섯을 소비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40대 이상의 장년층인데, 이는 이 세대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나. 수입현황

■ 양송이버섯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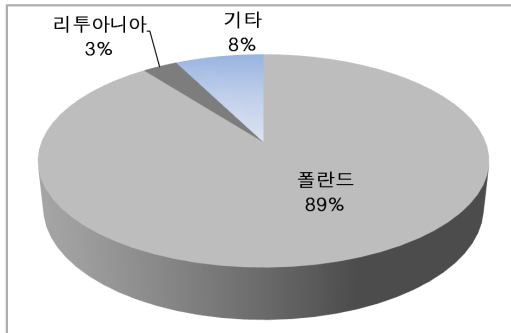
(단위 : 천불, 톤)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체	21,470	25,323	24,668	27,459	30,890	32,295
폴란드	19,219	22,716	19,054	21,108	29,513	30,893
리투아니아	637	716	735	779	848	883
중국	24	22	110	100	222	199
헝가리	112	131	241	282	131	138
네덜란드	673	789	2,387	2,806	53	55
슬로바키아	0	0	0	0	43	45
체코	441	519	1,611	1,761	28	30
프랑스	0	0	0	0	16	17
독일	213	250	528	621	15	15
태국	0.002	0.002	0.404	0.454	0.419	0.437
한국	-	-	-	-	0.019	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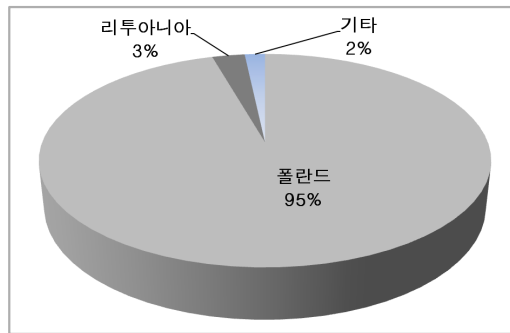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 HS코드 : 070951, Mushrooms Of The Genus Agaricus, Fresh Or Chilled

- 러시아의 버섯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송이 버섯의 수입규모는 2007년 기준 30,890천불, 32,295톤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8%의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수출국별로 보면 수입액의 95% 이상이 폴란드(29,513천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848), 중국(222) 헝가리(13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극동러시아에서는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산 버섯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



【2005년 국가별 수입비중】



【2007년 국가별 수입비중】

■ 기타버섯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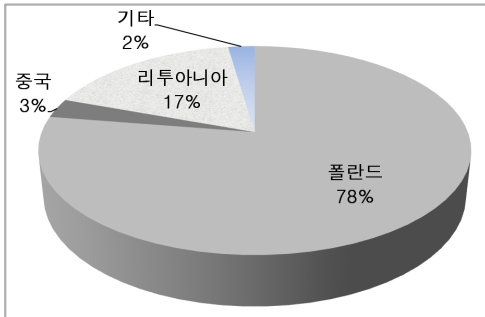
(단위 : 천불, 톤)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 체	216.48	126.09	122.47	107.99	481.89	486.67
폴란드	167.70	89.25	0.00	0.00	390.45	410.98
중 국	6.45	5.39	112.25	101.65	80.85	73.20
이탈리아	0.01	0.01	0.00	0.00	3.50	0.05
네덜란드	2.41	1.83	1.02	0.97	2.80	1.92
태 국	1.37	0.21	0.67	0.09	2.45	0.34
프랑스	0.187	0.223	0.091	0.051	1.627	0.060
한 국	0.000	0.000	0.000	0.000	0.170	0.085
남아공	0.000	0.000	0.000	0.000	0.028	0.014
벨기에	0.260	0.311	0.000	0.000	0.012	0.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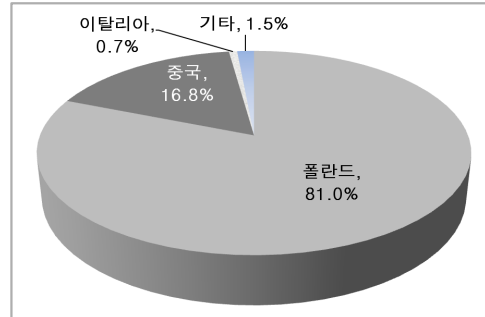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 HS코드 : 070959, Mushrooms, O/T Genus Agaricus, Truffles, Fresh Or Chilled, Nes

- 한국의 주력 수출 버섯류인 새송이와 팽이가 포함된 기타버섯의 수입규모는 2007년 기준 482천불, 487톤으로 2002년부터 연평균 65%의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수출국별로 보면 양송이와 마찬가지로 폴란드가 390천불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81), 이탈리아(3.5), 네덜란드(2.8), 태국(2.4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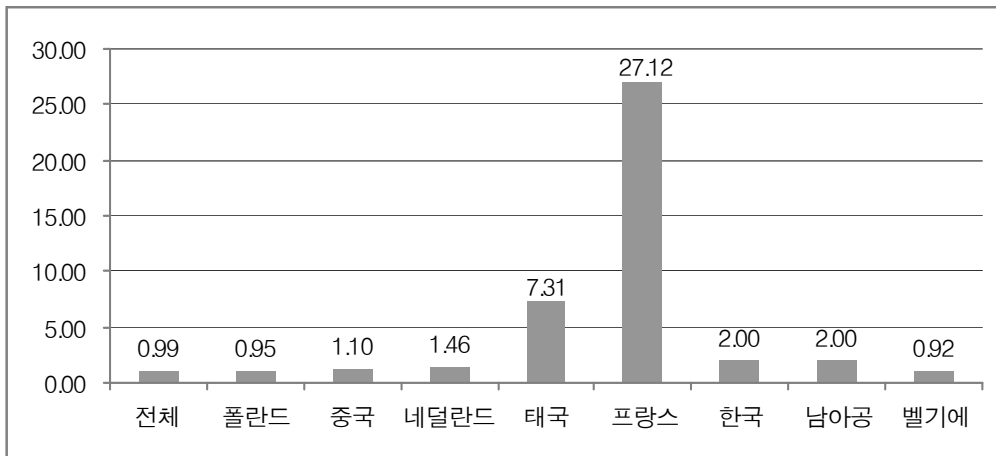


【2005년 국가별 수입비중】



【2007년 국가별 수입비중】

- 기타버섯의 수입단가는 양송이보다는 조금 높은 평균 0.99불에 수입되고 있으며, 폴란드와 중국산이 kg당 0.95불, 1.10불의 저가에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은 2.00불로 네덜란드 1.46불, 남아공 2.0불과 함께 중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태국과 프랑스는 7.31불, 프랑스 27.12불의 고가에 수입되고 있음



【기타버섯 원산지별 수입단가】

다. 경쟁동향

■ 가격동향

원산지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러시아
품 종	양송이	양송이	양송이	기타버섯
형 태	신선	신선	신선	절임
가 격	392루블/kg	378루블/kg	162루블/kg	318루블/400g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 조사 (2008. 7)

- 극동러시아에서 유통되는 신선버섯들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프랑스와 네덜란드버섯들이 kg당 392루블, 378루블로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 버섯의 경우 이보다 낮은 162루블에 판매되고 있음



【고가에 팔리고 있는 프랑스 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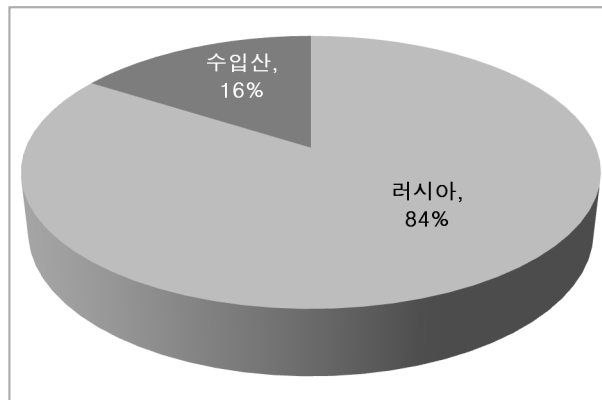
- 절임버섯의 경우 러시아 버섯을 절인 버섯제품이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400g에 318루블에 거래되고 있음



【러시아산 절임 버섯】

■ 소비자 선호도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이 버섯 선호성향을 보면 응답자의 84%가 러시아산 버섯을 선호한다고 대답해 수입산보다는 향이 강한 러시아 고유의 버섯 선호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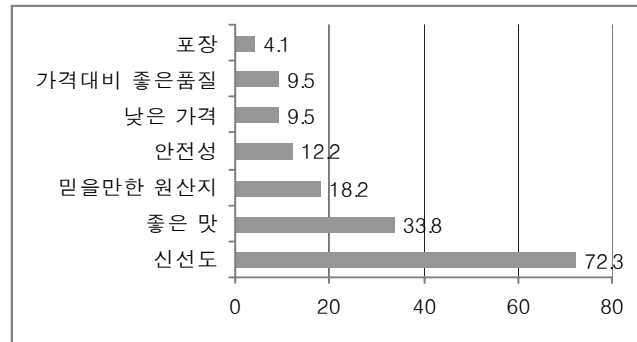
【러시아산 및 수입산 소비자 선호도】

- 러시아, 중국, 한국산 버섯에 대한 연령별 소비경험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버섯은 고령 연령에서 소비되고 있으나, 한국산 버섯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40대와 50대의 연령대에서 일부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이들의 믿을만한 원산지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연령별 버섯류 구입경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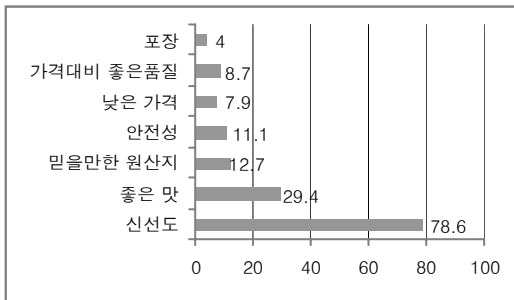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러시아	80%	82.90%	85.70%	88.60%
중국	20%	14.30%	8.60%	2.90%
한국			5.70%	5.70%
무응답		2.90%		2.90%

- 버섯 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신선도로 전체 소비자의 72.3%가 고려한다고 밝힘. 그리고 좋은 맛 (33.8%), 믿을만한 원산지(18.2%), 안전성(12.2%)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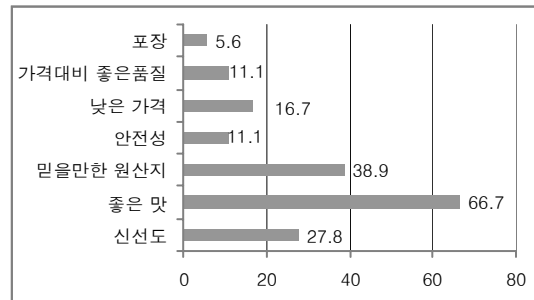


【버섯 구입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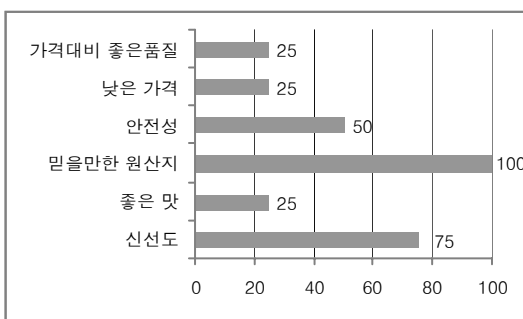
- 원산지별 구매사유를 보면 러시아 버섯은 신선도(78.6%), 좋은 맛(29.4%)으로 소비자들의 버섯 구입시 고려사항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중국산은 좋은 맛(66.7%)임. 한국산은 믿을만한 원산지 (100%), 신선도(75%)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좋은 맛과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러시아】



【중국】



【한국】

